

# 아동양육방식

## Parenting Behavior

박성연(Seong Yeon Park)<sup>1)</sup>

박응임(Ung Im Park)<sup>2)</sup>

한세영(Sae Young Han)<sup>3)</sup>

### ABSTRACT

Parenting or parenting behaviors has been a key subject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Studies on the parenting mainly focused on either the associations between mothers' parenting and child outcomes or variables predicting parenting behaviors. Regarding child outcome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has been more frequently studied than their cognitive developmen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s, children, and contextual environments have received attention in predicting mothers' parenting behaviors. Recently, there have been attempts in identifying the processes that are hypothesized to mediate or moder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nd developmental outcomes. Furthermore, the studies using longitudinal data have been increased as well. For a future direction, the age-specific and culturally sensitive measures assessing Korea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re needed. Research efforts and policies should be directed toward supporti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from diverse backgrounds in the rapidly changing Korean society.

**Key Words** : 양육행동, 양육방식(parenting behavior),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 양육신념(parenting belief).

### I. 현 황

부모의 양육방식은 지난 30년 동안 아동학 연

구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온 주제로서 아동의 발달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동안 시대적 변화 및 아동학의 학문적

<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협동과정 교수

<sup>2)</sup> 안동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sup>3)</sup>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ong Yeon Park,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발전에 따라 부모의 양육역할 뿐 아니라 연구자의 관심주제 및 연구방법 또한 변화해 왔다. 아래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양육방식에 관한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후, 연구의 주요결과와 동향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1. 연구주제

양육방식에 관한 연구들은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라는 주제로 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양육행동과 아동발달간의 관계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육행동과 아동발달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성 및 정서발달에 많은 관심을 두어왔으나 차츰 아동의 인지 및 지능발달 등 다양한 발달영역과의 관계로 연구의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한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주로 부모의 특성(인성, 원가족 양육경험, 신념 등)이나 아동의 특성(성 및 연령, 형제유무, 기질, 장애유무 등)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지지망이나 부부관계 등의 맥락적 특성에 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아버지의 양육행동이나 어머니와의 양육행동비교, 다양한 가족형태나 문화 간 양육행동 비교연구, 그리고 대리양육자의 양육방식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연구대상으로는 아동기와 유아기에 속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영아기와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연구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

편,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실험, 관찰, 면접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그러나 자료수집 방법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아를 대상으로 한 양육행동 연구는 어머니 보고 자료와 함께 영아와 양육자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눈에 많이 띄는(예 : 한지현 · 이영환, 2005; 이형민 · 박성연 · 서소정, 2008) 한편, 유아기 이후는 주로 어머니가 질문지 자료에 응답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세대간 전이나 세대간 비교 연구에서는 주로 회고식 보고가 사용되며, 이외에도 사이버 공간에 나타난 양육방식을 내용분석한 연구(예 : 김영주, 2004)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연구설계로는 횡단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단기 종단연구(예 : 정옥분 · Rubin · 박성연 · 윤종희 · 도현심, 2003)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료분석 방법은 지난 20여 년 동안 상관분석, 변량분석 및 회귀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종단적 연구자료나 대규모 패널데이터를 이차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추세(예 : 이주리, 2008)에 힘입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외에도 종단자료의 변화양상을 검증하는 잠재성장모형 분석도 점차 늘고 있다.

### 3. 연구주제별 주요결과

#### 1) 양육행동과 아동발달 간의 관계

양육방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사회 · 정서발달과 관련하여 볼 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합리적 지도, 적절한 한계설정,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개방적 의사소통 등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높은 사회적 능력이나 자이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왔다. 반면에, 부모의 과보호, 허용, 그리고 강압적 행동은 아동의 낮은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다. 또한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는 반면(유은희·임미옥, 2006), 정서적 학대나 방임적 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옥자·현은강, 2005). 이외에도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자녀의 일탈행동을 예방하며(나유미·임연진, 2003), 문제행동이나(안혜원·이재연, 2009),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여(김선애·김준호, 1995) 감독행동(monitorin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간의 관계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은 영아기나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방식 측정에서 특정 시기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아기에는 양육자의 민감성이 애착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한지현·이영환, 2005), 물체지향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영아의 발달에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박성연·서소정·Bornstein, 2005). 또한 청소년기에 심리적 통제행동이 청소년의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박성연·이은경·송주현·Soenens, 2008)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지 및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육행동 요인은 부모의 민감성이나 반응성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아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 어머니가 적절한 추론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은 유아의 이야기 구성 능력을 높이는 요인이며(한유진·유안진, 2001),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은 아동의 인지발달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었다(김말경·박혜원, 2008).

2)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 : 부모의 특성, 아동의 특성, 맥락적 특성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대체로 부모의 특성, 아동의 특성 및 기타 맥락적 특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부모의 특성에 관심을 둔 연구들은 부모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원가족 양육경험(발달사)이나 부모의 인성적 특성 및 부모의 신념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예를 들어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분리가 잘 이루어진 어머니는 자녀에게 온정·수용적이고(정문자·최난경, 2004), 원가족에서 처벌경험이 적을수록 부모는 효율적인 훈육을 하며(문혁준, 2001), 아들에 대한 양육행동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양육경험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박성연, 2002).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원가족에서 가족구성원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부모가 자녀에게 보다 긍정적인 양육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외향적이고, 안정적인 정서를 가진 어머니는 초등학교 자녀에게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덜 한다(전현진·박성연, 1999). 또한 어머니가 지도력이나 통솔력이 있고 사려성이 높은 경우 아동에게 온정·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충동적이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 거부·제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2). 이외에도 어머니의 우울은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으로 확인

되고 있다(백중화, 2009).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인간행동 이해에서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부모특성관련 변인들로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등이 주목을 받아왔다. 부모의 양육신념은 아동관이나 사회화의 목표 및 사회화 방법(즉 양육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되어온 반면(예: 김예빈·박성연, 2005),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의 중재 또는 매개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예: 김미숙·문혁준, 2005; 서소정, 2004; 신숙재, 1997; 최형성, 2005).

아동의 특성은 주로 기질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다. 기질은 부모의 반응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특히 부정적인 기질적 특성과 관련된 정서성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문혁준, 2001). 그러나 어린 영아의 경우는 부정적인 정서가 오히려 부모의 반응적 행동을 이끌어내기도 하여(유명희, 1991), 부정적인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1990년대 말부터는 접근성이나 두려움이 큰 기질과 관련된 행동특성에 관한 관심도 많아져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큰 아동의 경우 특히 어머니의 과보호 행동은 아동의 행동억제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정옥분 등, 2003). 같은 맥락에서 2세 때의 기질이나 사회적 행동억제는 어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할 경우에만 4세 때도 그러한 사회적 행동특성을 나타내(박성연·송주현·Rubin, 2008a) 양육행동의 중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에서도 양육효능감이나 양육스트레스 등 양육자의 지각적 특성이 매개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을 통해 온정, 수

용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최형성, 2005),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박경자·권연희, 2002).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기질자체보다는 아동의 기질로 인한 어머니의 정서적 상태가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특성 중 아동의 성 및 연령, 발달 단계, 형제유무(외동아, 형제아)나 장애 등도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우선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안지영, 2001)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가 여아보다 남아를 더 과보호하거나(유우영·이숙, 1998) 반대로 남아보다 여아를 더 과보호한다는 연구도 있어(박성연·Rubin, 2008)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일관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거부, 통제 등 부정적 양육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유우영·이숙, 1998).

한편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외동아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았으나, 한자녀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도 형제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숙경(1989)은 외동아를 둔 어머니가 형제아의 어머니에 비해 과잉보호를 한다고 보고하였지만, 도미향과 윤지영의 연구(2004)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형제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장애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아동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보고하는 연구도 늘고 있다(전민영, 2008; 최인경, 2008).

부모나 아동의 특성 외에도 이들을 둘러싼 환경, 즉 맥락적 특성 또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부부관계, 어머니의 취업유무나 사회계층, 사회적 관계망 등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맥락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높은 결혼만족도는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 애정표현,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합리적 지도를 증가시키는 반면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맥락에서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온정, 수용적 양육태도를 감소시키는 한편, 허용적 또는 거부적 양육태도(이지희·문혁준, 2007)나,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정미경·김영희, 2003)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취업모의 자녀들은 비취업모의 자녀들보다 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사회적, 정서적 반응을 덜 경험한다(이영·신은주·나중혜, 1994). 그러나 취업모의 양육행동은 취업유무 자체보다는 특히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근무시간 및 수입에 따라 달라져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수록(이선희·도현심, 2007), 보다 적은 시간 일하고, 총수입이 높을수록 더 온정적이며 지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이현정, 2009). 이외에도 저소득층가정의 양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저소득층의 경우 특히, 배우자와의 동거여부나 부부관계의 질(황혜원, 2004) 또는 경제적 스트레스(정미라·곽은순·윤장숙, 2007)가 비효율적인 양육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사회적 관계망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원으로서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효율적인 훈육태도 및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된다(최형성, 2005).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회적 지지 유무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이나 또는 사회적 지지로 인한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에 의해 양육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3) 양육행동비교 연구 : 아버지의 양육, 다양한 가족형태, 문화 간 양육행동 비교

가치관의 변화나 취업모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1980년대에는 주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아버지 부재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나, 아동의 성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연구자들은 아버지의 양육행동보다는 양육참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예 : 설경옥·문혁준, 2006; 이지영, 2008; 최한순, 1995). 이러한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육아나 가사노동의 참여 등으로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거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이혼가정, 한 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나타나는 양육방식이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반가정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여러 가족형태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발달적 결과가 가족형태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환경이나 달라진 양육방식 때문인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예를 들어, 홍순혜(2004)는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나 양육행동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함으로써 이혼가정 아동

의 적응에 있어 양육행동이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양육방식에서의 문화 간 차이나 다문화가정에서의 양육상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예 : 이영주, 2007; 고유미, 2009). 이러한 연구들은 각 문화에 따른 양육자의 가치관이나 양육신념의 차이가 양육행동이나 양육방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양육자인 결혼이민 여성들이 겪는 양육 상황 및 적응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발달을 다루고 있어서 양육행동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 4)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대부분의 양육행동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이나 요인으로 Schaefer(1965)의 애정-적대, 자율-통제 차원이나 Baumrind(1971)의 민주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방임적 양육유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하되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한 양육행동척도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예 : 박성연 · 이숙, 1990; 임정하, 2003; 허묘연, 2004). 또한 최근에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그 시기의 발달에 보다 효과적인 양육행동 요인이 있다는 것이 주장됨에 따라(Bornstein, 2002),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아동의 연령이나 특정한 발달영역과 관련하여 양육행동 유형을 구분하거나 세분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영아기에는 어머니의 민감성이나 반응성이 영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박경자, 2001; 이형민 외, 2008) 한편, 청소년기에는 심리적 통제행동이나 행동적 통제행동,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등이 발달에 특히 중요한 양육행

동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김성일 · 김남희, 2001; 박성연 외, 2008b; 박성연 · 이은경, 2009; 심희옥 · 김영미, 2000). 또한 일부연구에서는 아동 발달의 각 영역별로 더 중요한 양육의 하위요인들이 개발되기도 하여 아동의 학업동기와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은 학업적 양육행동과 비학업적 양육행동으로 나누는 한편, 학업적 양육행동에는 학업통제관여, 학업자율성격려, 학업기대 등의 요인을 포함하기도 한다(예 : 정지영 · 김희화, 2005). 같은 맥락에서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방식은 과잉보호와 아기취급행동 등으로 구분하거나 청소년기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방식은 과잉기대, 과잉간섭, 밀착통제, 자녀와의 분리불안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지만(정은영, 2008; 허묘연, 2004), 이러한 연구경향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다.

#### 5) 기타 : 부모의 양육(조부모양육), 대리양육, 부모교육

아동에게 양육을 제공하는 것은 주로 부모지만, 양육역할은 확대가족 및 타인이나 시설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확대가족 중에서는 특히 조모의 양육이 연구되어 왔으며,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대리양육이나 보육사의 양육방식에도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예 : 김혜지, 2006). 한편,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근래에 이르러 특히 부모교육이 주목을 받아왔다.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의 연령별 또는 행동특성에 적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단기적으로 부모들의 양육태도 및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어(김민정, 2008; 도현심 외, 2008), 보다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II. 연구쟁점

지금까지의 고찰을 토대로 양육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앞으로의 다루어야 할 연구과제나 방향들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양육행동 유형의 세분화 및 구체화

앞서 고찰하였듯이 양육행동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양육행동척도는 대부분 외국에서 사용되어온 양육행동유형이나 양육행동차원들이며, 연구자들에 따라 각 유형이나 차원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또는 통합하여 사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수용과 통제 두 가지 차원에 따라 유형화된 민주적, 권위주의적(강압적), 허용적, 방임적 양육행동은 대부분 복합적인 양육행동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구에 따라 비밀관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Park & Cheah, 2008). 또한 최근에 이르러는 아동의 발달단계나 상황특수적인 맥락에서 요구되는 행동발달을 위해 보다 적절한 양육행동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Bornstein, 2002; Davidove & Grusec, 2006). 이에 따라 양육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과 당면 과제는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영역에 따라 발달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양육측면을 세분화함으로써 각 발달시기에 적절한 구성요소를 포함한 양육행동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제적 양육행동은 처벌, 강압, 제한, 죄의식 유발 등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왔으나, 통제적 행동은 긍정적 측면인 감독이나 행동적 통제와 부정적인 측면인 심리적 통제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발달적 결과도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Barber, 2002). 국내에서는 일부 연

구에서(박성연 · 이은경, 2009; 정윤주, 2004) 양육행동유형의 세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동발달의 이해를 위해서는 양육행동 구성요소의 세분화 및 구체화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2. 문화적 특수성에 근거한 양육행동유형 개발의 필요성

서구를 중심으로 양육행동 유형과 아동의 발달간의 관계에서의 문화적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Bornstein & Cheah, 2005; Chao & Tseng, 2002). 특히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나 온정적 양육행동에 관한 서구의 척도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보면 어색하고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발견된다. 양육행동과 발달간의 관계나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에서 서구연구와 국내연구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것은 이러한 변인들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성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서구의 영향을 받은 현대 사회에서 과연 어머니들은 어떠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서구와 유사성 또는 차이점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양육행동에 대한 척도 개발 및 이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시급하다고 본다.

### 3. 생태학적 체계이론과 각 체계의 복합적 영향력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양육행동에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 국내연구들은 특히 Belsky(1984)의 가족과정이론의 세 가지 중요변인인 부모의 특성, 아동의 특성 및 맥락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각 변인들의 독립적(unique)영향력이나 누적적(additive) 영향을 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은 이러한 변인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나 양육행동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적 결과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중재변인의 영향력 등 관련변인들의 복합적(multiple)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4. 양육신념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부모의 양육행동은 인성이나 상황적, 맥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화 목표나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측면으로 지금까지 자녀관, 교육관 및 양육효능감이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화 신념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부모는 자녀를 사회의 한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기르기 위해 사회적 또는 정서적 행동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자녀가 어떤 특정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어떻게 바꾸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도방안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부모의 사회화 목표(goal), 귀인(attribution), 사회화전략(strategy)등 양육신념을 파악하는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양육신념연구는 아동의 행동발달의 문화적인 특수성을 이해함으로써 아동발달이론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 5.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육행동 연구의 활성화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중류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취업모, 맞벌이 부부, 이혼증가, 결혼이민 등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2000년 이후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동, 부모, 가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정, 조부모-손자녀 가정, 재혼가정, 아버지가 일차적 양육자인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방식이나 아동의 발달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방식이나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 및 이들의 양육방식과 관련된 변인들을 밝혀내는 연구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의 발달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부적응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강조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다. 또한 이차적인 양육자로서 아버지의 참여에만 초점을 두었던 지금까지의 연구동향과 달리, 일차적인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6. 측정도구,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의 다양화 추구

양육행동연구는 특히 자기보고나 아동보고 질문지외에도 부모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나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평가자를 통한 연구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행히 최근 대규모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종단연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들이 횡단적인 연구설계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소수의 연구만이 종단적 연구설계를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간의 행동발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교류적 관계의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발달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설계 및 발달체계를 추적하는데 적합한 자료분석이 필수적이다.

### III 실제적, 정책적 이슈

#### 1. 개인적 차원 : 부모교육 참여를 통한 양육행동 개선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기질적 특성 외에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구체적 양육방법이나 자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정문자·어주경, 2000; 최미경·신정희·구현경·박선영·한현아·최단비, 2008)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소수의 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어(도현심 외, 2008) 부모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은 지금까지 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부모들을 위한 서비스로 접근성 향상을 돕거나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즉,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교육을 받는 동안 자녀를 돌봐 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하며, 직장일로 바쁜 부모를 위해 직장에 기반을 둔 부모교육의 제공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고등학교 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부모교육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앞으로 부모가 될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부모교육형태 측면에서도 일회성 강연 형태의 부모교육을 넘어서 양육행동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다회기의 실제적이며 체험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교육 내용 또한 아동의 발달단계별 또는 기질적 특성에 따른 특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긍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부모교육은 부모와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적 특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부모의 효능감,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이봉주·김선숙·김남희, 2009) 저소득계층 부모의 양육행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도 요구된다.

#### 2. 사회적, 국가적 차원 : 긍정적 양육행동을 유도할 양육지원방안 구축

보육의 질과 긍정적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국내의 연구(박성연·고은주, 2003; 박성연·임미리, 2002; Adi-Japha & Klein, 2009)

에 근거해 볼 때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선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급여와 복지의 처우개선 및 보수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이미화, 2005),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아 보육을 강화하고 발달단계별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요구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보육예산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보육기관의 역할은 보육 및 양육관련 자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확장되어야 한다. 외국사례와 국내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사례(이미화, 2005)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단체와 가정보육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모와 보육종사자들에게 보육 및 양육관련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자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점점 늘고 있는 빈곤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의 부모들이 처한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해야 해야 하며, 이들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 기관의 설립을 우선시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92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와 42개소의 보육정보센터(중아보육정보센터, 2009), 그리고 44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이 있지만 여전히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전문인력도 부족하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3. 학문적 차원 : 과감한 연구비 지원확대

앞서 제기한 개인적 차원과 정부 및 사회적 차

원의 실제적·정책적 시사점들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문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단연구가 보편화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연구의 경우 대부분 단기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연구대상도 전국표본 추출이 아닌 지역표본 추출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현실은 국가의 연구비 지원에서 한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정부 차원에서 수행된 아동연구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지원 예산규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방대하다(The National Children's Study, 2009). 양 국가의 경제규모를 상대적으로 고려해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연구비 지원규모는 여전히 적은 실정이므로, 앞으로 정부차원의 아동관련 연구 지원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양육행동연구는 아동발달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발달단계별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단연구를 위한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고유미(2009).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외국인 어머니 가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말경·박혜원(2008). 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 스트레스와 K-BSID-II 수행간의 관계 : 양육 스트레스의 중재효과 탐색. 아동학회지, 29(1), 243-255.
- 김미숙·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민정(2008). 공격적 유아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 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애 · 김준호(1995). 부모의 통제유형과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2), 49-63.
- 김성일 · 김남희(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75-89.
- 김숙경(1989). 외동이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10(1), 43-63.
- 김영주(2004). PC 통신에 나타난 어머니의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한 내용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2(8), 1-13.
- 김예빈 · 박성연 (2005). 남,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화 양육신념. *아동학회지*, 26(6), 145-160.
- 김혜지(2006). 아동양육시설 보육사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 · 경북지역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2008). 아버지의 부부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 참여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9(5), 181-195.
- 나유미 · 임연진(2003).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리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87-98.
- 도미향 · 윤지영(2004). 외동이와 형제아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 *아동학회지*, 25(3), 75-85.
- 도현심 · 김상희 · 김지신 · 이사라 · 이희선 · 최미경 · 한세영 외(2008).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50-151.
- 도현심 · 이선희 · 오유리 · 김경미 · 최규리 · 강나현 (2009).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요구도 및 지식정도: 그 실태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30(3), 127-143.
- 문혁준(2001). 부모의 효율적 훈육태도에 관련된 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22(1), 35-29.
- 문혁준(2005). 자녀양육의 최근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5-48.
- 박경자(2001). 1세 영아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대한 Q-sort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1), 137-149.
- 박경자 · 권연희(2002).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과 관련된 변인: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애착 안정성. *아동학회지*, 23(4), 53-70.
- 박성연 ·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성연 · 임미리(2002).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 타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정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57-68.
- 박성연 · 고은주(2003). 영아보육 및 가족변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91-106.
- 박성연 · 서소정 · Bornstein, M. (2005). 어머니-영아 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15-30.
- 박성연 · Rubin, K. (2008). 걸음마기 아동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109-124.
- 박성연 · 송주현 · Rubin, K. (2008a). 4세아동의 단독 행동 하위유형들과 행동억제 및 양육행동의 관련성. *아동학회지*, 29(4), 97-113.
- 박성연 · 이은경 · 송주현 · Soenens, B. (2008b).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 박성연 · 이은경(2009).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구성요소의 타당성 연구: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아동학회지*, 30(2), 211-230.
- 박영애 · 최영희 · 박인전(2002).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3(2), 71-88.
- 백중화(2009). 우울 및 비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소정(2007). 양육효능감 : 자녀양육행동 매개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 설경옥 · 문혁준(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7), 1-9.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희옥 · 김영미(2000).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외 활동이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4), 159-175.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혜원 · 이재연(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 및 부모 감독의 중재 효과. *아동학회지*, 30(1), 77-88.
- 유명희(1991). 온순한 유아와 까다로운 유아의 울음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반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우영 · 이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 양육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 유은희 · 임미옥(2006).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97-106.
- 이미화(2005). 영아보육의 통합적 지원방안-부모와 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18.
- 이봉주 · 김선숙 · 김남희(2009). 한국아동의 삶의 현주소.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29.
- 이선희 · 도현심(2007).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5), 269-284.
- 이영 · 신은주 · 나종혜(1994).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1). *아동학회지*, 15(2), 37-54.
- 이영주(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리(2008).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조절과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29(3), 115-125.
- 이지영(2008).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과 자녀 양육 참여 :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희 · 문혁준(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6), 77-88.
- 이현정(2009). 취업모의 직업 특성이 양육행동과 영유아의 운동 · 사회 ·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3), 1-21.
- 이형민 · 박성연 · 서소정(2008). 어머니의 양육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임정하(2003).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민영(2008). 발달 장애아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진 · 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 정문자 · 어주경(2000). 저소득층 어린이집 교사와 유아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요구도 비교. *유아교육연구*, 20(3), 23-47.
- 정문자 · 최난경(2004).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5(3), 87-99.
- 정미경 · 김영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정미라 · 박은순 · 윤장숙(2007). 저소득층과 일반계층 아동의 양육 실태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347-369.
- 정옥분 · Kenneth, Rubin · 박성연 · 윤종희 · 도현심(2003). 영아기 기질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2-4세 아동의 행동억제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한

- 국가정리학회지, 21(3), 29-38.
- 정윤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 아동의 성과 또래수용도의 중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정은영(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지영 · 김희화(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율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9), 163-173.
- 조옥자 · 현온강(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9). 중앙센터소개-센터연혁. [http : //www.familynet.or.kr/about/history .php](http://www.familynet.or.kr/about/history.php).
- 중앙보육정보센터(2009). 전국센터기본현황. [http : //www.educare.or.kr](http://www.educare.or.kr).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9). 기관소개-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http : //www.korea1391.org](http://www.korea1391.org).
- 최미경 · 신정희 · 구현경 · 박선영 · 한현아 · 최단비 (2008).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지식수준 및 요구도. *아동학회지*, 29(5), 227-242.
- 최인경(2008).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한순(1995).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2005). 양육효능감의 매개 역할 : 양육행동의 인과관계 모형. *아동학회지*, 26(6), 351-365.
- 한유진 · 유안진(2001). 그림책 읽기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과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 *아동학회지*, 22(1), 147-162.
- 한지현 · 이영환(2005). 영아의 기질 및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상황에 따른 모-영아의 상호작용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6(6), 287-303.
- 허묘연(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 황혜원 (2004).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157-180.
- Adi-Japha, E., & Klein P. S. (2009).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quality and cognitive performance of children experiencing varying amounts of childcare. *Child Development*, 80, 893-906.
- Barber, B. K. (2002). *Intrusive parenting*.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4 (No.1 Pt.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rnstein, M. (2002). Parenting infant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 Vol. 1. Social conditions and applied parenting*(2nd ed., pp. 3-44).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ornstein, M., & Cheah, C. L.(2005). The place of Culture and Parenting in the ecological contextual perspective on developmental science. In K.H. Rubin & O.B. Chung(Eds.), *Parenting, beliefs,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pp.3-34), NY : Psychology Press.
- Chao, R., & Tseng, V. (2002). Asian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 Vol.4. Social conditions and applied parenting*(2nd ed., pp.59-93).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avidove,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 44-58.
- Park, S. Y., & Cheah, C. (2008). Concomitants and predictors of South Korean mothers' parenting.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Wuerzburg, Germany.  
Schaefer, E.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The National Children's Study (2009). Funding and Legislation. [www.nationalchildrenstudy.gov](http://www.nationalchildrenstudy.gov).

---

2009년 8월 10일 투고, 2009년 11월 1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